

서학개미, 이젠 ‘해외스팩’ 군침... 고수익 뒤 ‘거품 주의보’

(기업인수목적회사)

합병 기대감에 급등세 종목 속출 실적보다 미래가치 기반 투자 실제 합병 후 오름세 유지 드물어

‘서학개미(해외 주식을 직접 사는 개인투자자)’ 사이에서 해외 스팩(SPA C·기업인수목적회사)을 향한 관심이 커지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급등세를 보이는 종목이 속출해 고수익을 챙길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투기적 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것. 합병 후보들로 추정되는 비상장 기업의 밸류에이션이 부풀려진 데다 방향의 변동성이 커 합병 성사를 예단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스팩은 발행주식을 공모한 뒤 그 자금으로 비상장사를 인수·합병(M&A)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는 페이퍼컴퍼니다.

◆스팩 인기, CCIV ‘핫’ 종목

스팩이 미국 증시에서 기업들의 주요 기업공개(IPO) 통로로 자리매김한 분위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IPO 심사평가가 까다로워졌기 때문이다.

23일 기준 미국 스팩 상장 건수는 올해 들어 152건을 기록했다.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지난해 전체(248건)의 절반 수준을 넘어섰다. 2019년 전체 건수가 59건에 달할 것을 생각하면 스팩을 향한 높은 관심을 알 수 있다. 지난해 한 자릿수에 머물던 하루 신청 건수도 20 곳을 웃도는 경우도 생겼다. 스팩이 공모 시장 절반가량을 차지할 정도다.

국내 투자자들도 ‘특별한 사랑’을 보내고 있다. 서학개미 사이에서 가장 높은 관심을 받는 스팩은 처칠캐피털IV(CCIV)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전 거래일까지 CCIV의 순매수 규모만 7484만달러로 이 기간 해외 순매수액 상위 4위에 해당한다. 4628만 달러의 매수세를 기록한 아크라이트클

린트랜지션(ACTC)도 10위에 포진했다.

두 스팩 모두 전기차 관련 기업과의 합병 소식이 기폭제가 됐다는 공통점이 있다. 유망 기업을 선점하겠다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우량기업과 합병할 경우 고수익을 얻는다는 것이 매력 요인이다. 우주 관광 업체 버진갤럭틱, 부동산 온라인 중개 플랫폼 오픈도어, 배터리 제조업체 퀴텀스케이프 등 혁신 기업들이 스팩 상장을 통해 증시에 입성하며 주가 급등을 경험했다.

◆‘옥석가리기 구간 진입’

기대수익이 달콤한만큼 위험도도 크

다. 스팩은 상장 직후 대개 수익률이 높지 못하다. 합병 시기와 대상을 알 수 없어서다. 지난해 미국 증시에 상장한 시가총액 상위 10개 스팩의 1개월 평균 주가 상승률은 3.1%에 불과했다. 공모금액 상위 10개 기업의 1개월 평균 주가 상승률(72.8%)과 비교하면 초라한 수치다.

인수합병을 하더라도 주가 오름세를 유지하는 경우는 드물다. 2019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인수합병을 완료한 스팩의 기간별 평균 하락률은 3개월 3%, 6개월 12%, 12개월 33%에 달했다. 어렵사리 합병 기업을 찾더라도 여러 위험요인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니콜라와 멀티플랜은 사기의혹과 사업가치 저하로 인해 주가가 급락했다. 니콜라의 경우 지난해 6월 상장 직후 공모가(10달러)의 8배인 80달러까지 오른 후 현재 20달러대 선에서 등락을 반복하는 중이다.

일각에선 해외 스팩이 지나친 과열양상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린다. 현재 실적보다 미래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만큼 ‘거품’ 가능성도 의식해야 한다.

임지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질적으로 우수한 스팩도 많겠지만 지난해 생겨난 스팩 75%가 아직 합병 대상을

찾지 못했다”며 “스팩 열풍이 상당하지만 옥석가리기가 필요한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존속기업 보고 들어가야...ETF가 대안’

전문가들은 스팩 합병기업이 발표된 후 대상 기업을 분석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고 말한다.

임지용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스팩 투자는 합병 대상 기업이 알려지기 이전, 합병 상대 기업이 알려진 이후, 합병완료 이후까지 3단계에 나눠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합병 전 너무 높은 가격에 스팩을 매수하면 계획대로 합병이 되지 않을 시 손실을 볼 수 있다”며 “존속기업 발표가 나면 정확히 분석하고 성장성에 투자하라”고 했다.

간접투자 방안으로 상장지수펀드(ETF)가 유호한 선택지로 거론된다. 미국 증시엔 SPAK, SPCX, SPXZ 3개의 스팩 ETF가 상장돼 있다.

강대성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위험성 높은 개별 스팩에 투자하기보다 여러 스팩과 스팩합병 기업을 보유해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 SPAK나 SPCX와 같은 ETF 투자가 안정적”이라고 했다.

/송태화 기자 alvin@metroseoul.co.kr

트럼프에 찍힌 화웨이 “나, 죽지 않았어”... 상하이서 ‘부활의 포럼’

공동번영을 위한 연결포럼

사회적 역할로 이미지 쇄신 모색 디지털 격차 해소, 포용 성장 강조 “모든 사람에 혜택 제공 지향할 것”

금융을 잘하는 신한금융 그룹의 신한카드

교육비+입사축하금 350만(경력자 우대)
고객센터PDS(오토콜) 공채 2명
“지능화 발전”으로 통화성공률 효과 UP

▶ 지원자격:
 - 신입 / 경력
 - 경력자우대(전직장소득보장)

▶ 담당업무:
 상담 동의한 고객에게 전화 상담업무

▶ 지원접수처: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90길11 디프라이빙 23층 신한 용산센터 2실

※ 근무시간: 10시~5시(주5일근무) ※

FAQ

1. 상담업무를 해보지 않은데 할 수 있나요?
 누구나 한번은 처음입니다. 회사에 교육담당자와 매니저가 단계적으로 교육해드리고 숙증자를 최우선으로 해 드립니다. 처음에는 좀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꾸준히 하시면 어느새 전문가가 되어 있는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2. 직영으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이 있나요?
 - 교육비 350만(경력자 우대)
 - 교통차상, 대학생 2차내 학자금(연44)
 - 1~18개월차까지 정액급여지원
 - 매년 직립금 지급제도 운영
3. 수입은 얼마나 되나요?
 - 1년차평균: 월200~250만원대
 - 2년차평균: 월300~400만원대
 - 상위명칭: 업계최고 고소득발달
 ※ 수입은 내가 알고싶은 만큼 받는 능력과 같습니다
4. 다른 회사도 많은데 꼭 신한카드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신한카드 마케팅 동고객 대상으로 보합성상을 통해 고객의 행복에 대한 가치를 판매하고 가치를 사는 일을 하며 성사율이 매우 높은 회사입니다.

인크루팅/육성 전문실장 : 임연정 (문자환영)
010-3043-3574

화웨이가 회생을 향한 긍정적인 기대를 숨기지 않았다.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며 이미지 쇄신에도 나설 방침이다. 다만 미국이 여전히 무역 제재를 이어갈 분위기여서 ‘버티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화웨이는 22일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와 중국 푸단대학교 환경경제연구센터와 함께 ‘공동번영을 위한 연결’ 포럼을 개최했다. MWC 상하이 2021개최에 앞서 마련한 자리다.

화웨이는 이번 행사에서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에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지향한다며 디지털 기술이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부터 플라스틱과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등 환경보호 노력도 강조했다.

켄 후 순환회장은 코로나19 이후 ‘K자형’ 경제 회복 상황에서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포용 성장도 강조했다. 가나 농어촌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제휴와 말레이시아 중소기업에 신규 AI 서비스를 제공해 팬데믹 기간 생산성을 2배 높인 사례도 들었다.

말하자면 ‘뉴 화웨이’ 선언인 셈이다. 화웨이는 그동안 네트워크 사업에서 높은 가격 경쟁력과 기술력을 앞세워왔지만, 이날 행사에서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중점을 뒀다.

그동안 중국 정부를 위한 기업으로 낙인찍혀 무역 제재까지 받게된 상황을 의식해 이미지 쇄신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MWC 상하이 2021 화웨이 부스.

/화웨이



화웨이 메이트X2. 무역제재 속에서도 5나노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등 최첨단 기능을 넣었다.

미국의 무역 제재를 향한 비판도 서슴지 않았다. 캐서린 쉐 화웨이 홍보·대외협력 부문 총괄 사장은 포럼에서 기술 발전이 정치적으로 나쁘게 활용되기도 한다고, 미국이 중국의 5G 기술을 정치적으로 견제하고 있고 이는 기술 발전을 퇴보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여러 정부와 글로벌 단체들과도 자리를 함께하며 국제적인 지지를 잃지 않

았음을 드러냈다. 일단 포럼 공동 주최자가 국제 기구인 GSMA, 50개국 1000명 이상 전문가도 함께했다. 유네스코 스테파니아 지아니니 교육담당 사무총장보와 유럽의회 프란체스 피츠제럴드 의원 등도 발언을 통해 화웨이 주장에 동조했다.

모처럼 기술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지난 18일 MWC상하이 2021 사전행사로 ‘넷엑스 2025 네트워크 기술백서’를

발표한 데 이어, MWC 상하이 2021에서는 새로운 ICT 네트워크 개념과 9개 신제품 및 솔루션을 선보였다.

특히 화웨이는 폴더블폰 ‘메이트X2’를 공개하며 모바일 시장을 향한 여전한 노력을 확인시켰다. 갤럭시Z폴드와 같은 인폴딩 방식으로, 5나노 공정에서 생산한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기린 9000 5G와 자체 개발한 운영체제 ‘鸿蒙 OS’를 탑재했다.

무역제재에도 불구하고 최신행 스마트폰을 개발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일각에서 제기됐던 스마트폰 사업 철수설 역시 정면으로 반박했다.

단, 화웨이가 회생하기는 아직 어렵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당장 미국이 바이트대통령 행정부로 바뀌었음에도 무역 제재를 철회하지 않으려는 분위이기 때문이다.

화웨이가 동력이 남아있을지도 미지수다. 화웨이는 오랜 무역제재를 거치면서 큰 손실을 봤고, 계열 브랜드였던 아이클을 매각했을 뿐 아니라 글로벌 판매망도 대폭 축소된 상황이다. 닛케이에 따르면 이미 올해 스마트폰 부품 공급사에 주문량을 전년 대비 60% 줄이겠다고 통보하며 충격을 최소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메이트X2도 실제 판매량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화웨이는 당장 판매 국가를 중국에 한정했으며, 출시 일정과 규모도 밝히지 않았다. 가격도 1만8000위안(한화 약 310만원) 안팎으로, 경쟁 모델인 갤럭시Z폴드2보다 훨씬 비싸다.

/김재용 기자 juk@